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의 정 토 론 회

- 일 시 : 2015. 11. 25. (수) 14:30
- 장 소 :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 11. 25.(수) 14:30 ~ 17:00
- 장 소 :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5층)
- 주 최 : 충청남도의회
- 주 제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 방향 모색

■ 사 회 : 임운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진 행 : 강동복 /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

■ 기조발제 : 홍성현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인성교육 실천 방안

■ 지정토론

- 강동복 /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
- 성인제 / 前 성남초등학교장
- 박동수 /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 이명우 / 前 충남일보 편집국장

■ 자유토론 및 청중토론

■ 폐 회

목 차

■ 주제발표

-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인성교육 실천 방안 3
홍성현(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지정토론

- ☞ 공교육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15
강동복(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
- ☞ 인성교육론 I 27
인성교육론 II 37
성인제(前 성남초등학교장)
- ☞ 학생의 성품 및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55
박동수(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 ☞ 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확산 63
이명우(前 충남일보 편집국장)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주제발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인성교육 실천 방안**

홍 성 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발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 실천 방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홍 성 현

I. 시작하는 말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2014)에서 국민들의 72.4%가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도덕성 수준이 낮다(매우 낮다 24.8%, 낮다 47.6%)고 인식하고 있고, 48%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로 ‘학생의 인성·도덕성 약화’를 지적하였다. 이는 인성 교육, 인간교육, 또는 전인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주지하듯이 지난 해 12월 29일 정의화 국회의장 외 여·야 국회의원 101명이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도 인성교육 강화에 대한 국민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노력이 아닐 수 없다. 이 진흥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와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인성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며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비롯해서,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필요한 행정 인력 확보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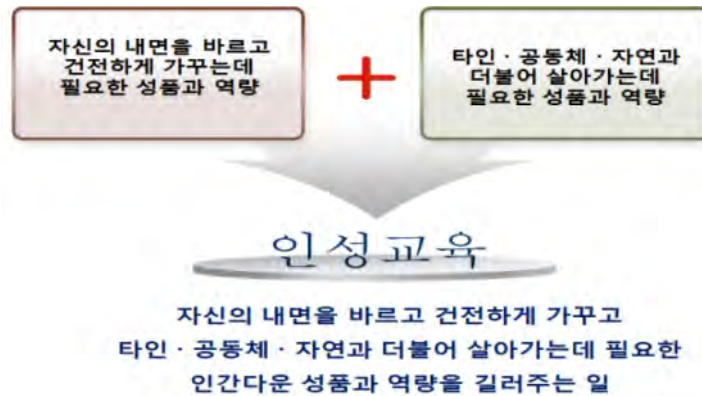
본 발제자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 실천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충남 인성교육이 나아갈 길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II. 인성교육 실천 방안

1. 인성교육의 개념

학생 폭력이 사회적, 교육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2011년 말부터 학생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 폭력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때 학교에서의 폭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성이란 무엇인가? 인성은 인간의 성품이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핵심 요소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공동체와 더불어 성장하는 인성역량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인성덕목 및 가체를 학습 제재로 하여 개인-관계-공동체 차원의 연결선 상에서 자기관리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갈등관리역량, 공동체역량을 균형 있게 학습하여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성 가치·덕목을 학생들에게 직접 지도하는 방법보다는 미래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인성역량을 중심으로 참여형 인성교육을 설계하고, 결과적으로 가치·덕목을 실천하도록 조직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활동에서 배우고 익히며, 가정과 사회에서 행동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인성 특성이나 인성교육은 보는 이의 관점이나 가치,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또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성 특성들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핵심은 바람직한 품성을 습득하게 하고 공동체 생활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주요 내용

교육부는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7.21자로 공포되어 시행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인성교육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인성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부장관은 장기적인 틀에서 국가 인성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범사회적인 인성 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한다.

- 1) 인성교육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학교·가정·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 2) 교육감은 인성교육종합계획을 토대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1) 위원은 교육부차관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 2) 위원회는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다.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인성교육관련 연수 방법을 다양화하여 연수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였다.

- 1) 현행 연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직무연수, 학교장이 연수기관장에 신청하여 승인받아 시행하는 직무연수와 더불어,
- 2) 학교장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하는 연수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라.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참여하는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인성교육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 인성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인성교육 실천 방안 모색

가. 개인(학생, 학부모, 교사)적 인성교육 실천

1)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좋은 환경, 훌륭한 스승, 풍부한 경험 등이 필요하지만 이것들이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환경과 경험의 조건이 인성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성 함양은 결국 개개인의 의식적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그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위해 인격을 형성시켜 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이 어떤 생각 혹은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사용하며,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지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인성 형성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인성 형성을 위한 과정에서 자기반성 혹은 성찰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필수요건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머물러야 할 최선의 상태에 대해 성찰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반성해야 한다. 자기에 대한 이해 혹은 인식, 자기 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 및 반성은 우리의 인성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이 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다.

2) 학부모

가정은 인성을 기르는 가장 작은, 그리고 최초의, 최고의 학교이다. 학교와 공동체를 통한 인성교육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학부모들로 하여금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떠받치는 것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가정의 부모와

구성원 들이 먼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공하고 그러한 생활을 직접 실천하면서 몸에 익히도록 이끌어야 한다. 학교 입장에서 볼 때, 학부모들의 참여 여부가 학교 인성교육의 성공을 말해주는 주요한 지표가 된다. 학교와 학부모가 인성 함양을 위한 공동의 연합 전선을 형성할 때, 학생들은 명확하고도 일관된 메시지를 받게 되고 또 더욱 진지하게 그것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정과 학교의 핵심적인 유대는 계속 쇠퇴되어 왔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자녀들을 옹호하기 위해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학부모로 인하여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교와 가정간의 파트너 관계를 파괴한다고 한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학부모들의 이러한 태도가 자녀들의 인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두둔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학교에 대해 불만과 강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녀의 인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녀들이 정당한 권위조차 존중하지 않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거나 합리화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적으로는 자녀들을 돕기보다 오히려 해치게 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학교도 가정과의 협력 관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가 학생 행동에 관한 허용 및 금지, 권장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할 때, 비정상적이고 무질서한 학습 상황을 방치할 때,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과업을 소홀히 하거나 그릇된 행동을 해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 가정과 학교의 협력 관계를 손상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학교는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에 대한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가정과 학교 사이에 공동 책임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을 학교 인성교육 계획 및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제안한 핵심 덕목들과 인성역량들, 그리고 이것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함양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동의하는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3) 교사

교사가 인성교육 최전선에 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스스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효과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다. 교사는 ‘바람직한 성품’과 ‘인성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께 갖추는 때에만 비로소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모두를 통해 학생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인성교육과 교과 학습이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인성 함양을 위해 학생들은 선생님과 동료들에 의해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따뜻한 배려로 가득한 교실,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교훈적 메시지가 전해지는 교실, 참여적인 교수학습방법(협동학습, 문제해결학습, 경험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 학습 등)이 적용되어 학습 동기를 촉진시키고 공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교실, 그리고 교과 지식과 자신의 삶이 상호 연결되면서 깊은 성찰로 안내되는 교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단순히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목과 관련된 정보 및 지식의 제공자라는 생각을 넘어서, 학생들에게 교과 지식과 삶의 문제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이 인성 발달에 필수적이고, 상호작용의 방식이 인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실천해야 한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명시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교사가 드러낸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양식을 통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며, 교사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어떻게 타인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이해를 구성해 나간다. 인성 발달 및 교육을 위해 교사와 학생 간에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하고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풍부하게 제공하고, 내재적 동기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교사와 학생 간 갈등해결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인성 발달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학생 상호 간에 발생하는 갈등해결과 긍정적인 의사소통 및 협동적 관계 형성을 통해 인성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촉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학교 차원의 인성교육 실천

인성교육은 단지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몇 개 프로그램의 단순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과(도덕, 국어, 사회 등 포함) 및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등 포함) 영역을 중심으로 잠재적 또는 비공식적 교육과정 통해 실천되어야 하며, 학교의 풍토를 개선시키는 포괄적인 학교 개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1-2가지의 특정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노력의 유용한 첫 걸음, 또는 도움이 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학교생활의 모든 면에 인성교육을 통합하는 총체적 접근을 대체할 수는 없다. 즉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러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공식적 교육 과정과 비공식적 혹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교육과정 안에 잘 녹아들어야 한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첫째로 ‘잘 조직된 학교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한 해 교육 설계도인 교육과정은 학기를 출발하기 전에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학생들의 요구와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작성하게 된다. 즉흥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아닌, 치밀한 사전 조사와 계획, 운영, 평가에 의해 잘 조직된 교육과정은 인성교육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성 교육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단위 학교 맥락과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내에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로 학교는 마땅히 교양 있고 배려적이며 정의로운 사회의 축소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간, 학생 상호간, 교직원 상호간, 교직원과 학생 가족 간의 배려 관계를 만드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이러한 배려적 관계는 학습의 욕구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 모두를 함양시킨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안전, 소속감,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가치와 기대를 더욱 내면화 할 것이다. 이러한 배려적인 학교 풍토를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존중하고, 서로의 필요나 바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괴롭힘이나 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교를 보다 정의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율과 참여를 강조하는 학교 문화로 탈바꿈해야 한다. 교직원 상호 간,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상호 존중, 공정, 협력을 경험할수록 이러한 핵심 덕목을 학생들에게 함양하도록 할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셋째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활동 기회가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체험하는 것에 의하여 최상의 것을 배우게 된다.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 혹은 프로젝트를 팀워크를 통해 해결하기, 스포츠맨십 보이기, 학업적 진실성 추구하기, 평화적으로 갈등 해결하기, 윤리적 딜레마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학급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기, 학급 일에 대한 역할분담 등과 같은 실생활의 도전들과 씨름하면서, 공정성, 협동, 존중의 필요성에 대해 실천적 이해를 지니게 된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다양한 활동들이 운영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지원되고 봉사학습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다. 지역사회 및 민간기관/단체

인성교육은 기존 학교자원으로는 활동 혹은 체험의 다양화와 고급화에 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등이 지닌 물적·인적 자원이 학교에 효과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과 위주의 교사들로 구성된 기존 학교자원으로는 체험활동의 다양화와 고급화에 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기업, 종교계, 문화·예술계, 스포츠계 등이 앞서서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이나 각종 기부 및 봉사활동 홍보와 지원, 실천·체험 위주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이와 관련된 교사교육 기회 제공 등 아동 및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

Ⅲ. 맺는 말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인성교육 실천을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교교육 과제들을 개발, 추진한다.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라면 인성교육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실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유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등 대상별로 기본 지침을 개발, 제공하여 추진한다.

둘째,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 및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

인성교육은 가정교육이 그 시발점이다. 부모의 삶의 태도로부터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실천을 돕기 위해 인성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가정교육에서 인성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학부모들에게 교육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단위 학교 중심으로 학부모 연찬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부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셋째, 교사 및 학교 경영자들로 하여금 교과 활동, 체험 활동,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는 학교 현장 교사들과 단위학교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교사들과 교감, 교장을 위한 연수는 물론이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전문직 연수도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교사들이 인성교육 전문가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때, 연수 대상자들의 부담

을 고려하여 연수 시기, 연수시간, 재정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

넷째,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 및 인력 풀을 확보한다.

인성교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 경험 등을 갖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일차적으로 사대, 교대, 교직과정 등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교직 후보자들로 하여금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다섯째, 인성교육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적 노력을 강화한다.

인성교육 진흥 과업은 학교와 가정, 정부의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단체나 관련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러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매스컴의 역할을 강화한다.

매스컴의 위력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건전한 의식을 형성하고 전술한 바람직한 가치들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우수사례 발굴이라든지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인성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 지원한다.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아무리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인력과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인성교육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총사령탑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기존 인력과 부서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성교육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과 사명을 맡기면서 구심체가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행정·제도적 뒷받침이 되더라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회적인 공감대 속에 인성교육진흥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지와 호응 속에서 인성교육을 진흥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 지원이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인성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점진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자체 평가 체제를 토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인성교육활동이 모든 학교 교육프로그램

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핵심 가치요, 기본 방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기의 한국사회에서 인성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사회가 ‘인성교육 입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토 론

- **공교육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 강동복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
- **인성교육론**
 - 성인제 (前 성남초등학교장)
- **학생의 성품 및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 박동수(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 **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확산**
 - 이명우(前 충남일보 편집국장)

(토론1)

공교육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충남지부 상임대표

강 동 복

1. 들어가는 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시대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대한 빠르고도 객관적인 상황인식과 함께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적 병폐와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옛부터 지속되어져 온 인성의 개념과 교육 실제적 틀에서 벗어나 우리의 현재 및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성을 찾아내고, 그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성을 형성하는 시기의 가장 중요한 2개의 축인 학교와 사회에서의 인성 교육에 각각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인성의 발현을 위해 실천적 방법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21일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발효되고 이제는 학교를 비롯한 공교육의 현장과 이에 연장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이 본격적으로 준비를 갖추고 출발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21세기형 인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부터 풀어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인간 삶의 상황을 고려한 21세기형 인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21세기형 인성은 피상적이고 단편적으로 덕을 습득하는 데 급급했던 경향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실존의 문제를 먼저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한 파악은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타인, 사회, 자연, 지구, 그리고 우주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측면과 관련하여 자기 존재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실존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게 자신의 존재와 나아가 인간존재의 문제를 숙고할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인간

본래의 모습, 즉 인간다운 품성을 갖추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21세기형 인성은 인간의 표피적이고 외적인 측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인성의 의미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21세기형 인성은 현 상황과 미래 상황을 고려하여 유동적인 인성의 의미가 고려되어야 한다. 인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과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인성이라는 것이 인간이 태어날 때 갖추고 있는 성질로서의 완성의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이 본래 갖추어야 할 성질로 인간이 인성교육을 통해서 이를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새롭게 요구되는 인간교육의 개념은 “종래의 인간교육이 추구하던 가치와 인간상을 새롭게 포괄하면서도 개인들의 다양한 삶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추구될 수 있다는 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셋째, 21세기형 인성은 성인이 되는 것과 같은 완벽한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실천인으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내재된 본성이든 인격이나 품성이든 인성교육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노력을 통하여 인성을 형성하여 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21세기형 인성이 지적인 면과 정의적인 면의 조화, 앎과 행위 사이의 조화, 그리고 지성과 실천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앎과 실천이 조화롭게 융화된 그런 존재로서의 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넷째, 21세기형 인성에는 남성의 경험만이 아니라 여성의 경험이 모두 포괄된 인성의 의미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세상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으로서, 양자의 인성적 측면이 조화를 이룬 보다 나은 사회를 형성해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기에, 우리는 인간다운 품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을 보다 다각적이고 폭넓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21세기형 인성은 자기중심성과 인간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것은 인간을 존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전 우주에 있는 다양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성이라는 것을 개인 내부의 문제로만 보는 자기중심성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요컨대, 시대가 변하면 그에 따라 교육의 내용도 변화되어야 한다.

지식기반 및 정보화 사회, 다문화 사회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 사회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삶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실존적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다양한 사회적 관점을 아우름과 동시에 유동적이며 실천적인 인성의 개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2. 인성교육의 원리와 공교육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충동과 본능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인성은 우리의 여러 가지 행동을 일으키고, 유지하며,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인성은 행동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행동에 주어지는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합하여 보다 적합한 행동을 구성하는 조정 및 통합의 기능을 한다. 이런 인성의 기능을 통하여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고, 목표행동을 결정하고 수행하며 행동 결과의 의미를 결정하며, 요구와 감정을 조절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조화롭고 통합된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 기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발성의 원리이다. 인성교육은 마음속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자신이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둘째, 인간관계의 원리이다. 인간성을 함양하는 문제는 자신의 문제이고, 자신의 사람됨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갈등을 성찰하고 비판하면서 보다 높은 인간성의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하는 인간관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자아성찰의 원리이다. 사람은 자신을 솔직하게 비판하고 성찰하게 될 때 비로소 향상된 인격의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성찰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넷째, 인성교육은 인격자를 길러내는 교육이다. 지식교육은 지식인을 길러내는 것이 될 것이고, 기술교육은 기술자를 양성해 내는 것이 목표라고 하면, 인성교육은 인격자를 길러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인성교육은 마음으로 하는 공부이다.

지식은 머리로 하는 공부이고 기술은 머리와 손으로 하는 공부라고 한다면, 인성 함양은 마음으로 하는 공부이다.

인성교육은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측면이 강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언어, 태도 뿐 아니라 내면의 감정, 동기, 무의식과 내면적 상태의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핵심은 도덕성의 발달에 있고, 앎·정서·행위의 세 측면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과거의 예절교육이나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한 교사의 일방적 교화 중심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인 만남에서 싹이 트고, 일부 교과에 국한된 것이 아닌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과 포괄성을 유지해야 한다.

3. 공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의 방법론

학교를 통한 인성교육의 일반적인 지도 방법 가운데 주요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급별로 학생의 발달수준에 맞도록 체계화하여 각 영역별로 실시하고, 정규 교과에 포함시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식중심의 도덕·윤리교육에서 벗어나 대화, 토론, 상담, 사회봉사 등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 내면화하고, 전 교과목에 걸쳐 도덕, 윤리교육이 실행되도록 한다.

셋째, 교사가 학생과의 인간관계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지도하며 학생들의 자발적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한다.

넷째,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알맞은 정보, 평화애호, 인류애 등에 관한 내용을 강화시킨다.

다섯째, 민주사회 시민의 기본자질인 협동정신, 봉사정신, 책임의식, 질서의식 등을 중점 지도한다.

여섯째, 일상생활 속에서 체질화되어야 할 도덕적 행위를 선정하여 습관을 형성시켜 주어야 한다.

일곱째, 교과서 중심의 인성교육에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으로 전환한다.

여덟째, 학교와 가정, 사회가 연계하여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고 학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한다.

학교교육의 핵심은 교육과정이므로 인성교육도 학교 교육과정의 틀속에서 편성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요구된다.

일선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인 인성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학교단위 인성교육은 반드시 통합교과적, 교과횡단적 접근방식을 따라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과정, 특히 윤리, 도덕, 사회 교과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은 교과과정 외의 교육시간을 추가함으로써 교과와는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주체가 될 교사를 배제하고 별도의 강사를 둘 경우 지속적인 인성교육에 문제점을 노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4. 공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의 실천 방안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특정 교과의 수업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 즉 교과 활동을 포함한 학급활동과 학생활동 등 모든 학교 활동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범교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거기에 더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뒷받침 또한 필수적이다. 범교과 차원의 인성교육은 일찍부터 강조되어 왔다. 예컨대, 플라톤은 ‘국가론(Republic)’에서 초기도덕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도 인성교육을 범교과적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강조하도록 하고 있다.

범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의 강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요한 교육적 목표지만 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교과의 특정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인성교육은 모든 교과로부터 시작하여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등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인성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교육 계획과 실천이 요청된다.

학교의 도덕적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이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잠재적 교육과정의 개념이 범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한 하나의 논거로 기능할 수 있다.

여기서는 범교과적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학교에서 실시될 수 있는 다양한 인성교육 방법들을 제시했다.

(1)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대부분의 학교 학습활동은 교과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구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영역 중의 하나가 교과교육이다. 이는 곧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이 교과학습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교과지도는 각 교과에서 요구되는 안목을 키워 사물과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교과의 가치 목표와

교수-학습과정에서의 과정적 가치를 체득함으로써 감동과 체험학습을 통한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과 활동에는 인성교육의 여지가 충분히 개입되어 있기에 교과지도를 통한 인성교육이 가능하다.

모든 교과는 수업활동에서 각각의 교과내용과 특성에 맞게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서의 교수-학습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실천하고 있다.

물론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도덕, 윤리 그리고 사회 과목이 교과목의 목적상 인성교육에 가장 합당한 교과목이지만, 모든 교과들이 그 형태와 지도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르나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수업 및 학습방법의 하나로 소집단 협동학습 등을 통해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인성 교육은 모든 교과의 실천과제이기에 모든 교과의 교사는 이런 관계를 인지하고 조금 더 의도적으로 정의적 교육과 잠재적 교육과정 속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해 나가는 역할이 필요하다.

교과지도를 통한 인성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각 분절된 교과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과적인 안목에서 교과를 다시 바라보고, 학생들의 관점에서 학교체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분리된 낱알의 교과활동이 개별적으로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되어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으로서의 인성교육과 아울러 과정으로서의 인성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업과정은 교과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이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될 때 그 전달내용이 감화를 줄 수 있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교과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인성발달이 요구되는 상황과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성장 단계에 따른 학습과제의 성격을 충분히 감안하여 다양한 입장들로부터 방법적 대안을 선택적으로 절충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성숙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다.

(2) 학급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학급의 담임교사는 조례와 종례, 수업시간 등을 통해 학급 구성원들과 가장 가까이 대면하고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작성 및 관리, 성적표 관리 등을 통하여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성격이나 인격, 언어와 행동 면에서 학생의 모델이 되어야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단위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학급 단위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담임교사의 역량을 발휘하여 인성지도에 일조하도록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는 도덕적 학급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민주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맡은바 책임에 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학교의 사회적 풍토, 또는 분위기라고 부르는 심리적 요인에 많이 좌우된다. 이는 곧 학생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상호의존과 상호존중을 공유하는 가운데 참여적, 지지적 환경이 될 때, 즉 공동체의 도덕적 환경이 형성될 때 개인의 원만한 인성의 발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교실을 도덕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는 스스로가 학생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요,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고 협동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협동학습을 강화하며, 또한 학급과 학교, 그리고 가정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유대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특별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특별활동이란 교과활동 이외의 모든 학교활동으로 바람직한 집단생활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봉사정신을 지닌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는데 힘쓰며,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마련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건전한 취미와 문학적 기초소양을 갖추도록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특별활동을 통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협동봉사정신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활동에서 인성체험이 가능한 학습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등이 있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취미활동과 개성신장 및 소질개발 활동을 하면서 바른 인성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남과 더불어 생활하며 남을 도울 줄 아는 인성을 육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로 모든 특별활동들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학교 실정과 학생 수준, 그리고 교육여건에 알맞은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하거나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특별활동 가운데서도 봉사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나아가 남을 도울 줄 아는 인성을 함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봉사활동에 참가함으로써 학생들은 공정성, 정의감, 타인에 대한 이해, 시민으로서의 의무감 등과 같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상호관계에 대한 추상적 이해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자신의 의식과 품성을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기에 인성교육을 위한 훌륭한 활동이 될 수 있다.

(4) 재량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재량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의 분권화와 자율화, 지역화 및 내용의 적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학교나 지역사회의 실정과 교원, 학부모, 학생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인간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창의적 재량활동은 지식위주의 일반 교과가 아닌 범교과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인성교육 및 기타 교육활동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창의적 재량활동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선호도나 단위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인성교육이 누락되거나, 선정된다 하더라도 지도 자료의 부족과 지도 교사의 전문성 등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체험학습의 경험제공을 통하여 인성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의 함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를 연계하여 보다 폭넓은 인간관계 속에서 협동정신과 질서 의식, 책임 의식 등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효의 실천을 가족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이웃과 사회로 확대하여 경로효친 의식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학습지도의 일차적 목표가 지적인 성숙에 있는 반면, 생활지도는 지적 영역 외의 인격적인 성숙에 기여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담과 생활지도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생활지도의 본질적 기능은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흥미, 인격적 특징을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최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또한 바람직한 개인으로서의 성숙과 민주사회의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성숙을 통하여 최대한 자아실현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지도 활동이다.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저마다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발달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서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개척하고, 사회적으로는 현명한 선택과 적응, 가치판단과 자기지도를 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생활지도는 실천적인 교육활동으로서 인성교육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학교에서 생활지도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지식 위주의 교육에 떠밀려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강조하는 생활지도로 인하여 학생들은 가치 선택에 있어서 혼동과 혼란을 겪기도 한다. 또한 타율적인 통제에 익숙하게 되어 자율성이 신장되지 못해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을 위한 주요 학교활동으로 생활지도를 새롭게 인식하고, 생활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지도를 통한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원만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함으로써 자아실현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중요하다.

즉 학생에 대한 일관되고도 존중적인 자세가 유지되어야 하며, 학교생활과 그 외의 환경에서 보여주는 일상속의 태도와 모범적 행동이 특정한 상담기법이나 전문적 지식의 개입보다 더 중요하다 하겠다.

(6) 특색사업을 통한 인성교육

인성교육은 인간교육의 기본이며, 학교교육의 핵심이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으나,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상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 인성교육의

측면에 소홀하기 쉽다. 이러한 점에서 단위 학교에서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인성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정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살린 학교 체제 구축이라는 정책에도 매우 부합된다. 학교 특색사업을 통한 인성교육은 무엇보다도 그 학교의 지역적, 조직적, 그리고 인적 특성들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알맞은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실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단지 중앙의 지시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직접 자신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진정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실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4. 결론

인성교육은 인간의 진정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교육, 인간의 본래적인 성품을 회복하고 계발하는 교육이다.

인성교육의 좌표를 바르게 설정하는 일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다원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그 역학적 관계에 주목하며, 문제의식을 체계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 그 자체가 인격과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누구도 이 관계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은 결코 학교만의 몫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과 사회가 청소년들에 대한 훈육과 선도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인성교육에 대한 학교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학교교육 또한 그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해 낼 수 있을런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리의 학교교육이 지식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분절적 교육과정으로 짜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의 직·간접적 목적이 입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덕성 함양과 인격 확립을 위한 교육체제로서는 크게 미흡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학교가 인성교육의 중요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학교교육이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일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인간의 전체적인 성장을 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 본연의 목적은 인격체의 도덕적 통합을 성장의 중핵으로 삼는 데 있다. 학교교육의 본연은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환상으로 취급되거나 비현실적 주장으로 폄하되는 것은 결국 그만큼 학교 안의 인성교육이 오랜

기간 본래의 모습을 벗어나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학교가 어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인성교육은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성에 기반을 둔 설계와 운용, 그리고 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학교마다 일률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인성활동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내면적인 행복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인성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도덕적인 교사, 도덕적인 부모, 도덕적인 동료, 그리고 도덕적인 사회의 형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개별적 교과활동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활동과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덕성 함양과 인격 확립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을 학교교육의 일반 교과와 별도로 구분되는 또 하나의 교과 방식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인성의 개념을 분절적, 탈맥락적으로 접근하려는 시각으로부터 연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편향된 시각과 잘못된 경향이 우리의 학교현장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학교에서의 전인교육은 교육과정 수준을 초월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재구성이 요망되며, 교육의 본연과 본질 회복을 위한 전체 구성원의 성찰과 참여, 연대와 책임 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결국,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의 문제는 교과교육 전반, 나아가 학교교육 전반의 문제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은 교과교육 수준에만 머물지 말고 학교 전체를 도덕의 장으로 만들어, 학교 전체를 단위로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전반적으로 도덕적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정의롭고 배려하는 교실 및 학교 문화를 조성할 책임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모든 교사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성교육은 단위학교 자체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성찰과 노력에 토대한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질 필요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도와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차 례



1 나의꿈 나의 사명

2 TOTAL HEALING인성교육PROJECT

3 상충의 현실

4 상생의 미래

5 인성교육 PROCESS

6 효교육 / 뇌교육 / 국학교육

7 관련 자료 및 인터넷사이트

나의꿈 나의 사명



인성교육, 이제 됐다!!

TOTAL HEALING 인성교육PROJECT란?

1. 한국에만 있는 효의 개념을 Harmony of young & old의 첫글자를 따서 'HYO'라 명명한 성산효대학원의 교육이념 및 방법을 수용함.



인성교육, 인재 됐다!!

TOTAL HEALING 인성교육PROJECT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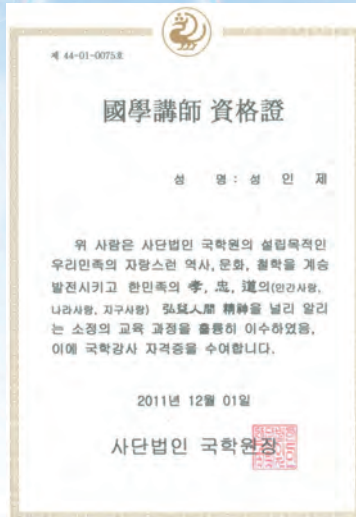
2.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및 국제사이버대학교에서 뇌교육학과, 뇌융합학, 뇌과학 등의 전문영역을 수용하여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뇌교육을 적용



인성교육, 인재 됐다!!

TOTAL HEALING 인성교육PROJECT란?

3.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의 국학과의 교육이념 및 방법을 수용하며, 강단사학과 향토사학 및 민족단체의 다양한 견해를 포괄 수용하여 민족혼부활교육을 실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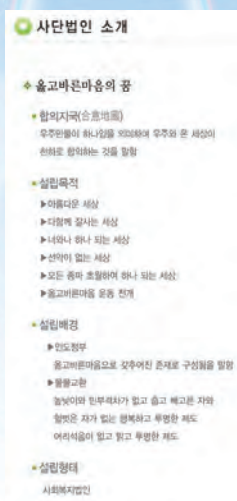


성남 교육 활동 모습			
행사명	HSP 충남대회 참가		
일 시	5월 9일	장 소	국학원
참석대상	▷ 학교 대표 학생, 사물놀이부원 및 인성교사		
행사개요	▷ HSP GYM 대회		
교육활동 장면			

인성교육, 이제 됐다!!

TOTAL HEALING 인성교육PROJECT란?

4. <사>옳고바른마음쓰기 운동본부의 30여년 Know-How를 기반으로 다학문간 융합을 통한 장점의 취합으로 최적의 인성교육비법을 만들어 내는 Project를 말함.



인성교육, 이제 됐다!!

TOTAL HEALING 인성교육PROJECT란?



-이 프로젝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 종교,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두루 두루 인정 수용하며 포괄하는 지구 대통합의
철학을 갖고 있어

갈등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융합
(Total Healing Project)의 글로벌화가 용이함.

인성교육, 인재 됐다!!

기본컨셉 개념도 (상충의 현실)



인성교육, 인재 됐다!!

기본컨셉 개념도 (상생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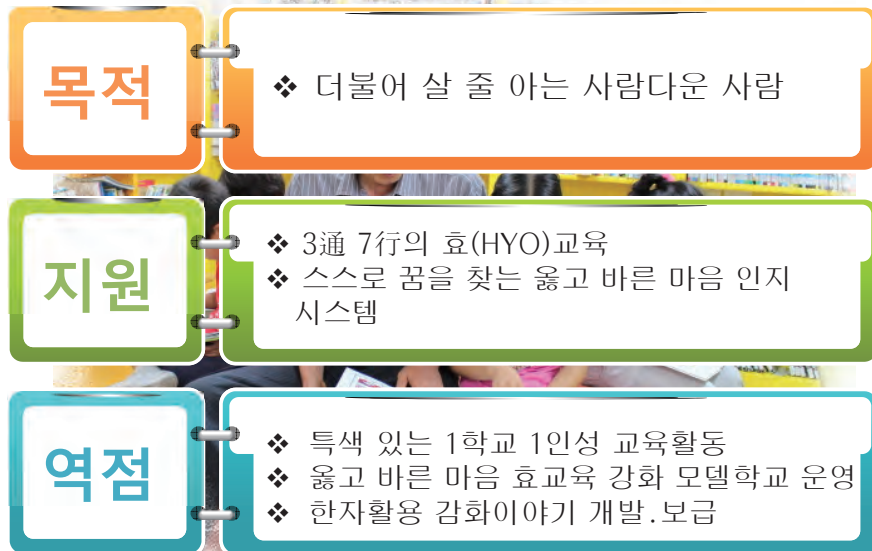
인성교육, 이제 됐다!!

인성교육 PROCESS



인성교육, 이제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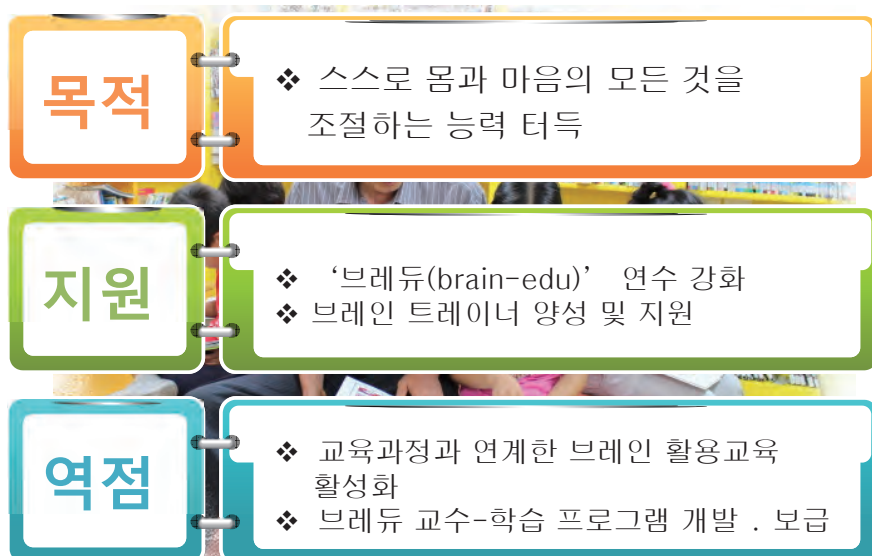
참된 인간 양성을 위한 옳고 바른 마음 효(HYO)교육



학생중심 교육지원 방안

인성교육, 인재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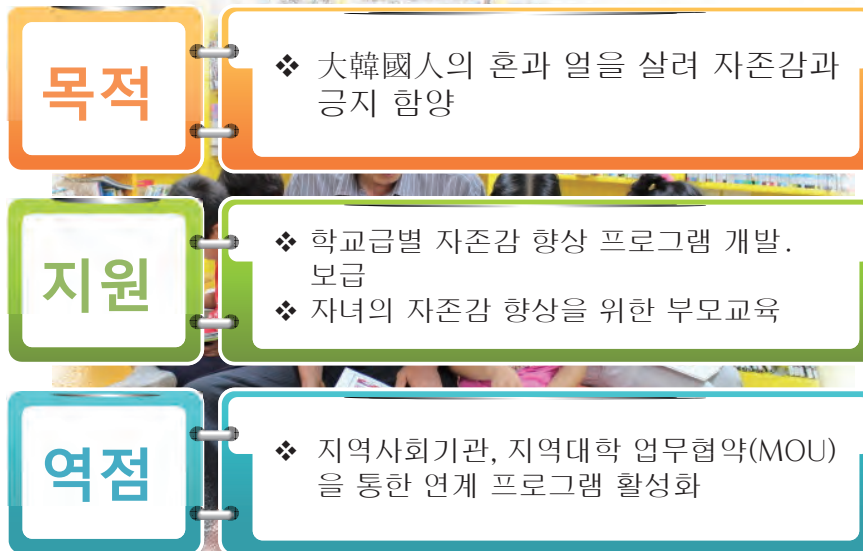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브레듀(brain-edu)교육



학생중심 교육지원 방안

인성교육, 인재 됐다!!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



학생중심 교육지원 방안

인성교육, 인제 됐다!!

관련 자료 및 인터넷사이트

- 박근혜 대통령, 제4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주재
- 인문정신문화, 이제 쉽게 만나게 됩니다 :: 아이디어 팩토리
- 존댓말, 기초예절의 시작 :: 아이디어 팩토리
- 옳고바른마음 명상법
- 옳고바른마음 카페홈
- 옳고바른마음 블로그

인성교육, 인제 됐다!!

감사합니다.



인성교육론 II

前 성남초등학교장

성 인 제

I. 인성교육

1. 개요

먹을거리, 입을거리, 볼거리, 배울거리가 풍족한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면서도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생명경시 현상의 반인륜적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격한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인간마음을 쓰지 않는데서 오는 인간성 상실과 신뢰성 상실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성교육법에서 말하는 정의처럼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어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성의 핵심가치와 덕목을 놓고 현실성 있게 공교육 안에서 교사 주도하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성교육의 시작은 지식교육이 아닌 마음알(씨)을 깨어 각자의 인성과 본성을 살려 스스로 인성의 덕목과 가치를 높여가도록 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생활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이 절실하고 간절하다고 봅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교육의 목적은 사회 환경과 더불어 진화를 거듭하며 무지를 깨우는 지식 전달형의 교육에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넘어 지금은 지식 도달형의 행복 추구권과 함께 사회에 공헌하는 인간성을 요구받는 시대를 맞이하기에 이르렀으나 전문화 되고 세분화된 다양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상실의 격한 사회에 노출되어 개인을 위한 인격성은 갖추고 있으나 공동체를 위한 인격성은 갖추지 못하고 있기에 단체생활과 더불어 협동심을 살리는 인성교육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큰 이때 시행되는 국민인성교육진흥법이 안착되길 기대합니다.

나. 문제점

1) 인성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인성은 지식으로 습득되는 세뇌형 암기식 지식교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이며 진리적으로 규명하여 알아야합니다.

30~40년 된 옥수수 씨앗이 적당량의 물을 만나면 스스로 발아되어 뿌리와 싹을 틔우고 자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스스로 행하고 필요할 때 영양분을 주는 것이 지식입니다. 사람에게도 고유의 마음 알(씨)이 있어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주어야 스스로 발아하여 인성을 깨우고, 본성을 깨우고 양심을 회복하여 인성덕목과 가치를 살려 덕망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2) 인성회복은 본성을 깨우는 기술입니다.

“줄탁동시”란 말처럼 병아리와 어미닭이 함께 알을 쪼아 부화를 돕듯이 마음 알을 깨고 스스로 발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성지도사의 역량이며 기술력입니다.

3) 인성교육자의 인성지수가 인성교육의 성공을 가늠합니다.

마음은 파동에너지에 의하여 공유합니다. 선생님의 마음성향 즉 인성지수에 의하여 학생들의 인성에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 놓기에 인성교육자의 성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나만의 성향을 찾아 나를 가꾸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나의 본성과 본질을 찾아 나만의 성향에 맞는 행복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성교육의 목적입니다.

5) “바른품성 5운동”은 아쉬움이 1% 있는 인성 실천운동이었습니다.

“바른품성 5운동”은 좋은 실천 덕목을 갖추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스스로 먹고 싶고, 익히고 싶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을 깨워주지 못하였기에 뷔페식당처럼 차린 것은 많았으나 먹고 싶은 마음을 깨우지 못해 두고두고 아쉬움이 큰 인성실천 운동이었습니다.

3. 개선방향

나의 정의를 세우고 내 행동에 오디션을 보듯이 스스로 검사하고 검품 받으며 나부터 임하고, 나부터 갖추고, 나부터 행하여 예절 있고 인품 있는 아름다운 모습

으로 가꾸고자하는 마음을 내면 생각은 몰라도 마음이 변화되어 행동이 달라지게 되며 강력한 정신력이 살아나 마음건강, 정신건강으로 감정컨트롤과 행동조절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가. 인성지도교사의 중요성

- 1) 교사들의 마음성향과 마음상태에 따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마음성향과 마음상태가 전이현상에 의하여 복제되는 아바타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 2) 학생 인성교육 이전에 교사들의 인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인성지도 교사의 인성지수와 인격성이 완전하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 3) 교사가 행복할 때 행복의 에너지가 넘치고 슬플 때 슬픔의 에너지가 나오듯 교사들의 행복한 생활과 마음힐링이 행복한 학교를 만듭니다.
- 4) 전체 교사들의 약 70%이상이 마음과 정신의 힐링이 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런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나. 전문 인성지도교사 양성원칙

- 1) 인성지수 평가서 개발 및 인성교육역량의 표준규격화 마련
- 2) 인성교육지도자의 본마음의 인성지수를 평가하여 검증된 역량 있는 인성지도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마련
- 3) 인성교육 지도교사 또는 인성지도사의 전문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검증하고 인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제도마련

다. 전문 인성지도교사와 인성지도사 모집 및 육성

- 1) 퇴직 교사를 활용한 전문인성지도사 양성 인성지수가 높은 마음성향을 가진 퇴직교사를 선발하고 인증된 전문교육단체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
- 2) 교원임용고시 합격자를 활용한 전문인성지도사 양성 교원임용고시 합격자 전원을 인증된 전문인성교육 단체의 인성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선별 하여 인증자격증을 부여하고 활용하는 제도
- 3) 인성교육지도자 또는 단체를 인증하는 제도 마련, 인성교육 전문지도 역량과 프로그램 을 갖추고 인성지도사 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를 인증하고 인재교육을 위탁하는 제도
- 4) 옳고바른마음 인성지수가 높고 마음성향이 갖춰진 인성지도자에게 자격을 부여 하는 제도

【실천방법】

- (1) 생각과 행동이 옳고바른마음이길 원하고 각오와 다짐하는 생활로 굳은 의지력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 (2) 하루 일과에 세 번씩 “나○○○은 옳고바른마음입니다.”를 외치고 인지하여 정신통일로 자신감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 (3) 도보와 훈련시 “옳고” “바른” “마음” 구령을 붙여 모질고 강한 정신력을 깨우는 인지 방법입니다.
- (4) 지나친 생활습관으로 인한 행동에 “옳고바른마음이 맞나요?” 확인하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 (5) 생각에 갖가지 변화가 생길 때 옳고바른마음을 인지하여 정의와 논리로 이해력을 키워 마음에 평정을 얻어 여유로운 생활과 건강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 (6) 나의 행동에 옳고바른마음정의를 세우고 스스로 검품하여 예절과 질서, 윤리와 도덕성이 살아있는 인격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7) 생각을 긍정으로 반전하고 감사함을 익혀 행복한 삶을 찾아 나를 지켜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되는 방법입니다.
- (8) 나의 생활에서 허점, 오점, 빈틈없는 완전한 나를 가꾸어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4. 대책

가. 옳고바른마음인지 인성교육

“옳고바른마음인지 인성교육”은 창의적인 사고력과 지구력을 증진시키며, 자신에 대한 재발견을 통하여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인성회복과 교육문화의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그 간의 연구결과와 다양한 체험참가자들의 사례를 놓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밝은 태양이 뜨면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어내는 자연의 동화법칙에 의하여 한사람의 인재가 “옳고바른마음”으로 거듭나는 것만으로도 그 주변 사람들이 동화되어 함께 변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험 참가자의 변화됨을 계기로 나하나 바로서면 주변이 바로 선다는 것이 증명된바 이를 인성교육과 공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옳고바른마음인지 인성교육”이 교육자와 지도자들에게 전수되어 가정화목과 사회 안정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역동적인 기회로 삼아 교육문화의 혁신을 이루고, 효과 예절과 나라사랑의 정신이 살아있는 정신문화를 꽃피우길 기대합니다.

마음의 알(마음씨)이란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인간미와 정의를 살려서 누구에게나 통하는 예절 있는 용어와 질서 있는 모습을 갖추어 나부터 인정하고 정의로운 생활방식을 가지고 떳떳한 모습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아 사회에 보급할 수 있도록 권장과 습득하는 자세를 펼치어 마음의 DNA
과동력으로 목적 있는 생활 속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생활을 말합니다.

마음의 인지, 대뇌의 생각, 소뇌의 습득, 행동의 정의를 가진 인성 자리에
우뇌가 발달하여 생활습관이 길러지게 되는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의
노력으로 자아를 깨우는 인성이 나의 본성을 깨워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알(마음씨)이 싹을 틔워 꽃을 피우고 씨앗의 논리가 홀씨 되어 인성의
본질이 한국형 미래의 본 모습을 찾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개발목적

물질만능으로 변화되는 사회문제를 놓고 예의와 질서가 있는 생활의 환경
변화가 필요할 때라 보고 옳은생각과 바른마음으로 아름다운 지혜를 찾아가는 감성
적인 가슴형의 어진 사람으로 양심회복하여 믿음 있는 사회를 구성하는데 기여
하고자 합니다.

1) 개발원리

옳고바른마음은 나의 마음성향을 알고 자신의 재능을 재발견하여 인품과
덕망 있는 나의 진 모습으로 가꾸어 지피지기로 나를 지켜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의 파동에너지이며 본마음DNA의 본성이자 줄기세포를 말합니다.

2) 과학적 원리



3) 인지과학의 원리

사람은 의식과 무의식에 인지된 기억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옳고바른마음인지로 마음안에 잠재되어 있는 좋은 성향의 유전자를 깨워 재능을 발현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승시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본질을 바꾸어 인지하고 행동하는 인지과학의 원리입니다.

(예: 이순신장군의 불굴의 투지와 열정의 애국정신 사상을 전인지선 심기지선으로 익히며 나의 DNA안에 성향을 찾아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과 꿈을 이루어 가는 정신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4) 파동의 원리

슬픈 음악은 슬픔을 남기고, 즐거운 음악은 흥겨움을 주고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에서 기쁨과 행복의 열정이 살아납니다.

옳고바른마음을 갖게 되면 양심적인 행동의 표현으로 인해 생명의 에너지가 상승되어 동물과 식물들의 성장과 건강에 좋은 영향이 전해지는 파동의 원리입니다.

(예: 옳고바른마음을 되뇌어 주면 우유가 치즈가 되고, 양파의 성장이 촉진되며 물 분자가 몸에 좋은 육각수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5) 유전자 접붙이기 원리

가지나무에 고추를 접목하면 가지고추가 열리고, 고염나무에 단감나무를 접목하면 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옳고바른마음인지성으로 좋은 것을 찾아 접목해가는 생활습관성을 기르면 나의 본질이 바뀌어 나로부터 인정받는 예절 있고 덕망 있는 아름다운 모습의 행동으로 변화됩니다.

(예: 좋은 성향의 유전자를 찾아 접붙이기 또는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원리입니다.)

5. 연구성과

수십 년간 심신안정을 놓고 마음연구와 심리테스트를 해온 결과 “특정인(폭력, 사기, 자살, 다중인격, 마음장애, 행동장애 등)으로 바뀌는 과정은 본마음의 DNA가 생활환경과 본질로부터 변화되어 대물림으로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성격이상과 행동장애들 이었습니다.

옳고바른마음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습관을 기르면 마음DNA

알(씨)의 본성이 회복되어 자력으로 상호존중과 예절과 도덕성을 지켜내는 성능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 연구와 사례적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프로그램 특징

본 프로그램의 특징은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는 과학적 원리를 놓고 행동의 근원인 마음가짐을 해롭게 하는 장애원인을 찾아 스스로 개선하고 반전하는 행동을 통해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습득시간이 짧고 행동을 유발시키는 생활적용력이 뛰어나 다수의 인성을 동시에 깨우고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첨단 방법입니다.

- 1) 옳고바른마음 인지하여 바로보고, 바로듣고, 바로말하고 행동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력심에 의해 인성이 살아나고 본성이 회복되며 자신의 무한한 잠재능력이 재발견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 함께 나누고 베푸는 협동문화를 살려가게 됩니다.
- 2) 옳고바른마음 인지력을 높이는 옳고바른마음쓰기 생활운동은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의 인성을 동시에 깨우고 본성을 살려낼 수 있는 최첨단의 방법임을 여러 연구와 체험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 3) 감정컨트롤, 분노조절, 스트레스해소, 심신안정, 기억력상승, 집중력상승 등, 마음건강, 정신건강, 몸건강을 스스로 가꾸고 지켜가는 자력심이 생기는 것을 여러 실험 참가자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4) 옳고바른마음쓰기운동은 감성과 도덕적 양심을 회복하여 정신적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생활습관을 바꿔 실천하는 자양력을 살려낸다는 점에서 정신운동으로 남녀노소는 물론 인종과 종교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5) 나 하나의 변화로 주변사람이 함께 동화되고 함께 변화되는 마음 파동의 전이 효과가 빠른 첨단의 방법입니다.
- 6) 인성교육이 교육과 훈계의 관점이 아닌 스스로 문제를 찾고 습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와 사회와 가정이 삼위일체로 합심하여 시민이 스스로 의식수준과 인격을 높이는 옳고바른마음 정신운동에 다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7. 옹고바른마음인지 사례별 분석

가. 태교

- 1) 참가대상 : 임신 전·후의 기혼 남녀(30세~38세의 부부52쌍)
- 2) 교육기간 및 시간 : 약 3개월 ~ 12개월(15시간~52시간 / 주 1시간)
- 3) 교육방법 :

(가) 옹고바른마음인지생활

흠어지는 마음, 복잡한 생각, 격한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옹고바른 마음을 되뇌여 인지시키고 드러난 현실의 문제에 대해 긍정으로 반전하여 감사한 이유를 찾아 인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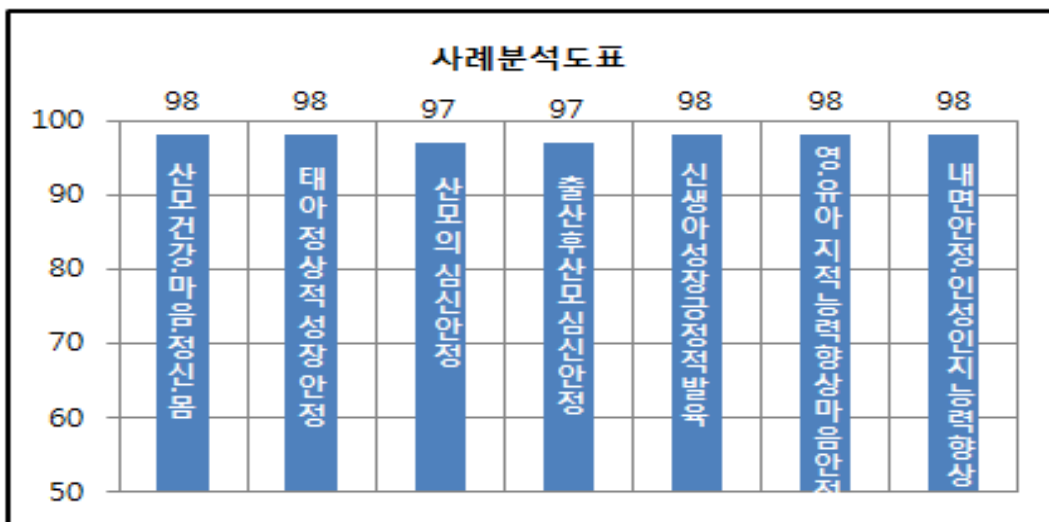
(나) 옹고바른마음 인지명상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떠오르는 과거의 생각과 마음의 기억에 옹고바른마음을 인지하여 긍정으로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4) 사례분석

- (가) 산모의 건강(마음, 정신, 몸)에 도움 : 98%
- (나) 태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안정에 도움 : 98%
- (다) 산모의 심신안정에 도움 : 97%
- (라) 출산 후 산모의 심신안정과 빠른 회복에 도움 : 97%
- (마) 신생아의 성장과 긍정적 발육에 영향을 줌 : 98%
- (바) 영, 유아기 지적능력의 향상과 마음안정 : 98%
- (사) 내면의 안정과 인성인지능력의 향상 : 98%

▼ 옹고바른마음인지 태교사례분석



나. 옳고바른마음인지 인성교육

1) 참가대상 : 초, 중, 고, 대학생(통계참여 누적 청소년 : 약5000명)

2) 교육기간 및 시간 : 약 1개월~3개월(4시간~12시간 / 주1시간)

3) 교육방법

가) 옳고바른마음인지교육

(1) 옳고바른마음을 보고, 듣고, 말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지하고 자신의 행동이 옳고바른마음이었는지 스스로 분석 평가하고 내가 생각하는 옳고바른 마음의 정의를 세워 행동을 바로세워 다시 인지하는 방법.

(2) 옳고바른마음인지 생활명상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집중하면서 더 유익하고, 편리 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찾아가는 생활의 지혜를 얻는 인지방법으로 마음내기, 마음쓰기, 마음다듬기, 좋은 생활 습관 기르기를 통하여 나를 아름답게 가꾸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3) 3분 명상

각오와 다짐을 통하여 옳고바른마음으로 “책임 있는 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

4) 사례분석

가) 심신안정(마음, 정신, 몸 건강)에 도움 : 98%

나) 집중력과 지구력에 도움 : 96%

다) 감정컨트롤과 분노조절에 도움 : 100%

라) 잠재능력의 재발견과 진로에 도움 : 95%

마) 공감과 소통을 통한 대인관계 개선에 도움 : 98%

바) 학습력 향상에 도움 :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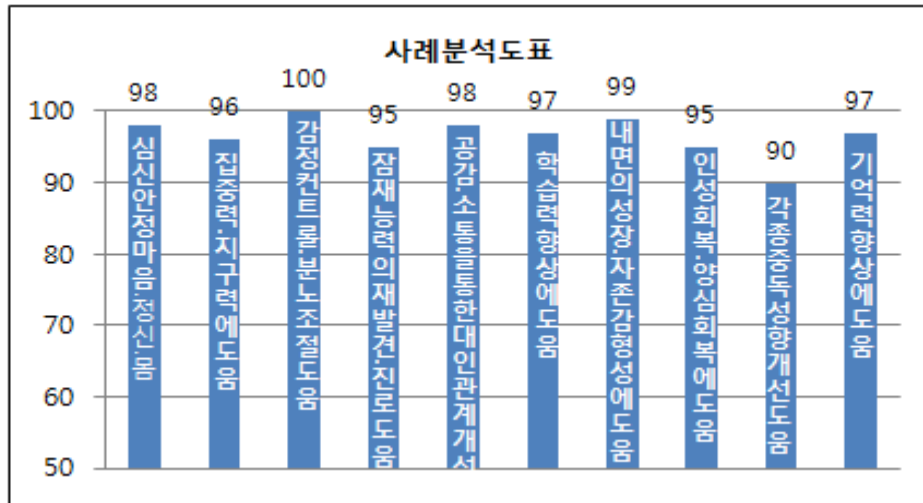
사) 내면의 성장과 자존감 형성에 도움 : 99%

아) 인성회복과 양심회복에 도움 : 95%

자) 각종 중독성향 개선에 도움 : 90%

차) 기억력 향상에 도움 : 97%

▼ 옹고바른마음인지 인성교육 사례분석



다. 옹고바른마음인지 생활

- 1) 참가대상 : 일반인과 직장인
- 2) 교육기간 및 시간 : 3박 4일 (25시간~32시간 / 1일7시간)
- 3) 교육방법

가) 옹고바른마음인지 인성교육

(가) 옹고바른마음인지로 오감을 깨우고 바로보고, 바로듣고, 바로 행할 수 있는 퍼팩트레이닝을 통해 관찰하고 분석하고 판단하여 자신의 행동에 허점, 오점, 빈틈을 남기지 않는 완전한 나를 가꾸는 방법.

나) 옹고바른마음인지 생활명상

생활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집중하면서 더 유익하고, 편리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찾아가는 생활의 지혜를 얻는 인지방법으로 마음내기, 마음쓰기, 마음다듬기, 좋은 생활습관 기르기를 통하여 나를 아름답게 가꾸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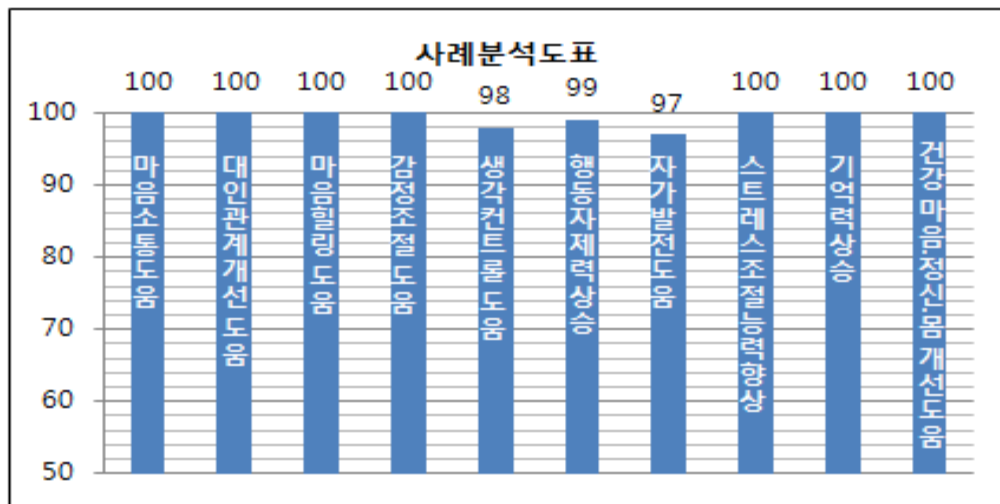
다) 옹고바른마음 힐링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놓고 감사함을 찾아 스스로 깨닫는 과정을 통하여 아픔도 슬픔도 시련도 나를 단련하여 성공시키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음을 인정하고 수학여행 가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방법.

4) 사례분석

- 가) 마음소통에 도움이 된다. : 100%
- 나) 대인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 : 100%
- 다) 마음힐링에 도움이 된다. : 100%
- 라) 감정조절에 도움이 된다. : 100%
- 마) 생각 컨트롤에 도움이 된다. : 98%
- 바) 행동 자제력이 상승된다. : 99%
- 사) 자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 97%
- 아) 스트레스 조절능력 향상 : 100%
- 자) 기억력 상승 : 100%
- 차) 건강(마음, 정신, 몸) 개선에 도움 : 100%

▼ 옳고바른마음인지 생활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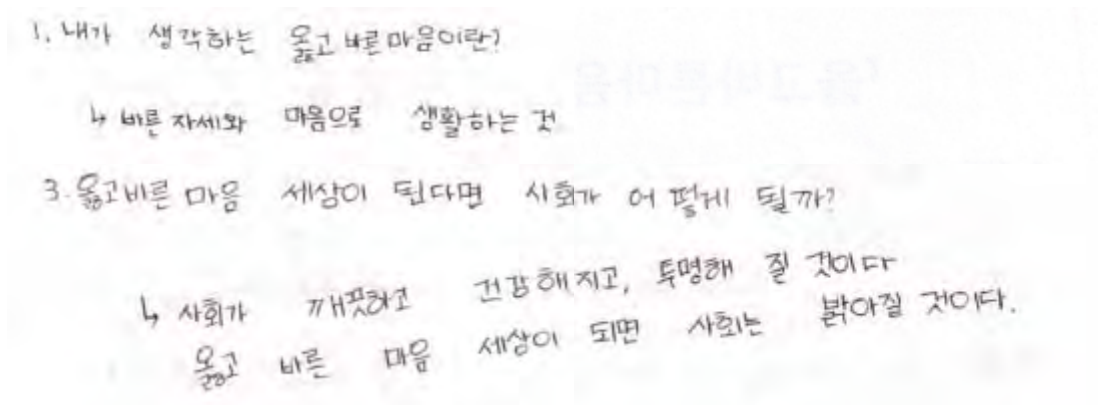


라. 옳고바른마음인지 체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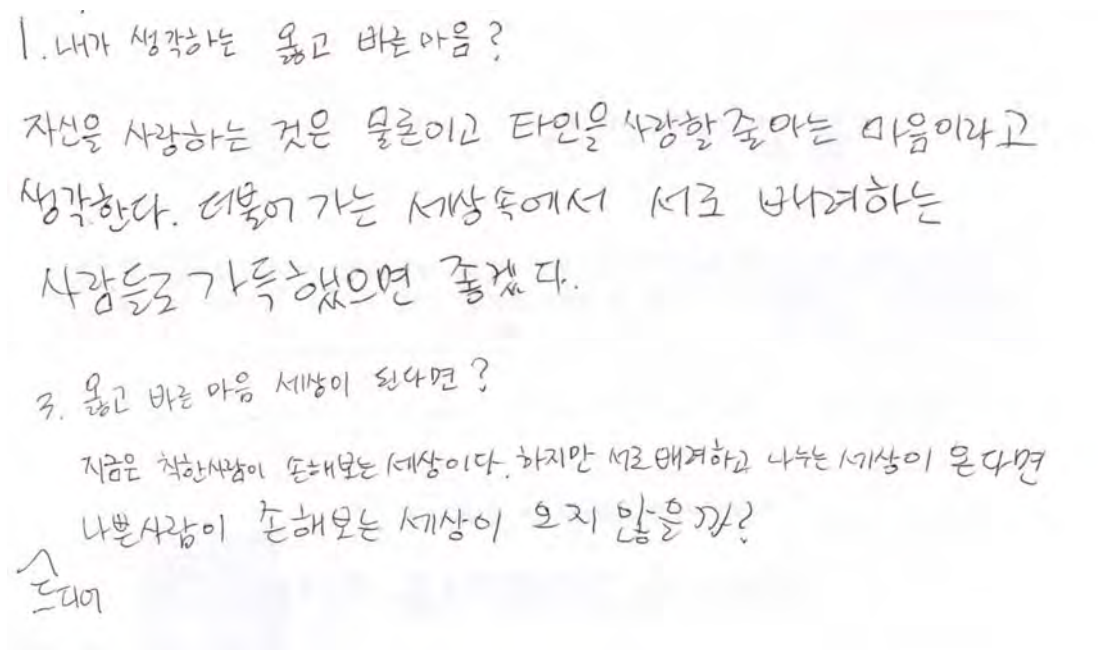
1) 내가 생각하는 옳고바른마음은?

【참가자: 985명】

“내가 생각하는 옳고바른마음이란?” 테마를 놓고 초, 중, 고, 대학생, 주부, 교사, 일반시민 등 참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공감하고 격려해 주시며 삼척동자도 아는 옳고바른마음이 우리가정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믿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던 사례와 살아서 볼 수 있게 해달라시며 손을 놓지 않았던 할아버지의 굴곡진 주름에 희망의 눈물이 가득 고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남 거주 중학생 임○○)



(서울시 거주 대학생 이○○)

옳고 바른 마음 세상이 된다면...
경쟁, 법원들이 없어서 실업자가 생긴다.

(옥천군 거주 초등학교 최○○)

3. 옳고 바른 마음으로 살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사회에서 다름과 분별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씩 이해해 줘서
좋은 의견들이 모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것 같다.

(분당시 거주 중학생 심○○)

1. 내가 생각하는 옳고 바른 마음

내가 생각하는 옳고 바른 마음이란 이 세상을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다.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란 양심의 가책 없이 말하며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세상이 부조리에 옳고 바른 마음으로 나 하나는 진실되게 말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옳고 바른 마음을 지니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
내가 생각하는 옳고 바른 마음을 전파를 보내고 싶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옳고 바른 마음과 그들이 생각하는 옳고 바른 마음으로 세상은 지금보다 더 ~~이러해질~~ ^{이러해질} 것이다.
진실, 솔직, 바른 자세, 배려, 이해의 옳고 바른 마음으로 나를 더욱 더 단정하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다.

3. 옳고 바른 마음 세상이 ~~되었다면~~ 된다면

옳고 바른 마음 세상이 된다면 싸움, 헐뜯기,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이 사라질 것이다.
평소에 사소한 사소한 일로 인해서 착한 사람들도 상처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생의 묘미는 무엇인가? 롤러코스터라 생각한다.
너무 단조로우면 어떤 재미있지 않을까? 세고 사우고 시기 질투 해몽으로써 옳고 바른 마음의
소중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는 자립성을 가진 모두 옳고 바른 마음의 정도를 잘 파악하고
살아가면 된다.

(대전시 거주 대학생 문○○)

1. 내가 생각하는 옳고 바른 마음이란 ?

옳고 바른 마음이란 지금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생각을 전파하고 모든 강의처럼 서로를 관찰하며 칭찬을 해서 인간
관계 또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제기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옳고 바른 마음을 ~~딱~~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나의 생각에는 ~~이~~ 지금과 같은 삭막한 사회에
남아있는 작은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진천군 거주 대학생 한○○)

3. 옳고 바른 마음 세상이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

모든 사회는 벅 벅 막막하고 경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때에 모두가 옳고 바른 마음을 실천함으로 그런 문제는 적어지고 인간 간에 경이 다시 살아나는 사회가 될것이다.

1. 내가 생각하는 옳고 바른 마음이란?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나를 알고 앗는 마음인거 같다.

2. 옳고바른마음 세상이 된다면?

희를 내는 사람이 없어서 싸움이 없을것이며
범죄도 줄어들거 같다.

(세종시 거주 초등학교생 김○○)

1. 내가 생각하는 옳고바른 마음?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올바른 자세로 나를 수련하는 마음만거 같습니다.

3. 옳고 바른 마음 세상이 된다면?

범죄없는 세상이 되서 안전하고 누구나 오고 싶은 나라가 될 것이다.

(청주시 거주 중학생 안○○)

1. 내가 생각하는 옳고 바른 마음

- 내가 먼저 옳고 바른 마음 자세로 갖도록 노력하고

남을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마음

3. 옳고 바른 마음 세상이 된다면

: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공주시 거주 초등학교생 성○○)

1. 내가 생각하는 옳고 바른 마음이란

나를 알고 나의 꿈을 이루고 바른 마음을 갖는것

(강릉시 거주 대학생 조○○)

3. 옳고 바른 마음 세상이 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

마음과 생각이 마음대로 바뀌면 사회도

마음대로 될 것이다.

(강릉시 거주 대학생 조○○)

(00고등학교 교사 조○○)

“옳고바른마음”이란 말을 접하고 왜 저렇게 말끝마다 “옳고바른마음”을 강조할까? 한편으로는 유치하기도 하고 또한 과하다고 느껴질 때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것이 올라오더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과 잘났다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독불장군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며 나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연수와 교육을 받아보았지만 나 스스로 나를 알고 반성하는 이런 변화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에 문을 열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옳고바른마음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지난날의 억울하고 아팠던 기억이 고스란히 녹아내려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몸과 마음이 절로 힐링되는 것을 체험하며 학생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교직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이 살아남을 온 몸으로 느꼈습니다.

옳고바른마음인지 인성교육을 통해 나의 건강을 지키는 법도 배웠고 너 안에 나, 내안에 나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배려와 소통을 통해 아이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안목도 갖게 되었습니다.

옳고바른마음인지운동이 전 국민운동으로 승화되어 맑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본인도 한알의 밀알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과학영재고등학교 1학년 박○○)

평소 나를 억압하고 무시하는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커져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상담센터 선생님과 병원상담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했다.

우연한 기회에 옳고바른마음운동 자원봉사를 갔다가 옳고바른마음인지 인성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옳고바른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정의로 지켜내야 하며 나를 지키기 위해 감정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생길 때 옳고바른마음을 강하게 외쳐 인지해 보라고 하셨다. 옳고바른마음인지 교육을 받은지 4일째 되던 날 나는 핸드폰 사용문제로 아버지와 격한 언쟁을 하게 되었고 평소 가방에 가지고 다니던 생선회칼을 들고 무의식적으로 아버지 방을 향하던

중 옳고바른마음을 인지해 보라하셨던 교수님 생각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옳고바른마음”, “나 박○○은 옳고바른마음”, “나는 옳고바른마음입니다” 잠시 후 놀랍게도 눈물이 흐르며 감정이 사라지고 행동이 멈추게 되어 큰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밤 12시를 넘긴 시간이었지만 교수님께 전화로 “내가 아버지를 죽일 뻔했어요” 하며 무서워서 영영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옳고바른마음의 외침으로 나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며 지금은 안정을 찾고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으며 옳고바른마음인지 생활로 집중도 잘되고 생각도 맑아져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옳고바른마음인지 인성교육과 옳고바른마음쓰기 국민운동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교사 강○○)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과 피해의식으로 인한 불안감이 깊어 상대에 대한 보복심이 커져 동료와 학생들에 명단을 작성하고 가방엔 칼을 품고 다니며 기회가 오길 기다리던 중 옳고바른마음인지 인성교육을 만나 걸으면서 한걸음 한걸음 옳고바른마음을 심는 심정으로 걸은 것뿐인데 그 간의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샘물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 동료에 대한 시기와 질투, 학생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봄눈 녹는 것처럼 녹아내리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것처럼 마음에 평화와 화해가 찾아왔다. 옳고바른마음인지의 힘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체험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이제는 교사발령 받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학생들과 동료교사와 소통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내 자식처럼 돌보아야겠다는 마음뿐이다.

옳고바른마음인지 인성교육이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국민 모두에게 빨리 전해져 건강을 함께 나누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 서○○)

친구들로부터 이유 없는 따돌림과 폭력으로 학교생활이 지옥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 정신과 치료와 상담센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성적은 밑바닥에 유일한 내 친구는 컴퓨터 게임이다 보니 하루 10시간은 기본이었다.

어느 날 엄마의 소개로 “옳고바른마음인지 생활운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가슴이 답답하거나 화가 나면 “옳고바른마음을 마음속으로 힘차게 외쳐보라고” 하시며 옳고바른마음 인지명상을 가르쳐 주셨다. 친구들로 인해 화가 나거나 게임에 빠질 때마다 “나 서○○ 옳고바른마음이야?”하고 반문하는 생활을 1달정도 했는데 놀랍게도 컴퓨터 게임이 재미 없어지고 나를 따돌리던

친구들이 말을 걸어오면서 친구들과 다투는 일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신기하기도 하고 지도선생님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공부 전에 1분정도 옳고바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나 서○○가 되겠습니다.” 다짐했는데 나의 성적은 4개월도 되기 전에 상위권에 들었고 학교생활이 즐거움으로 변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와 친구들과의 대화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이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럽다. 옳고바른마음인지교육과 인지생활명상에 감사하며 하루 빨리 좋은 생활 방법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마. 옳고바른마음인지 인성교육의 제안

수십 년을 한결같이 본성을 찾고, 인성을 회복하고, 양심을 살려 믿음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방법을 연구하던 중 마음에도 본성향의 DNA가 있고 그 성향의 유전자가 변질되면서 반인륜적 격한 행동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고 인지과학과 마음과동의 원리를 이용하여 옳고바른마음을 인지해 준 결과, 특정인(폭력, 사기, 자살, 다중인격, 마음장애, 행동장애 등)의 행동이 자신도 모르게 바뀌어 행동하는 것을 여러 연구와 체험사례에서 확인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옳고바른마음인지력을 높여, 있는 자리에서 다수의 사람에 인성을 깨워 믿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옳고바른마음인지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옳고바른마음쓰기 범국민운동”을 시작하고 보니 효과와 실효성이 뛰어나 이를 국민인성회복 차원에서 국민정신계몽운동으로 다루어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문화의 상품성을 널리 알려 제도약하는 교육강국이 되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토론3)

학생의 성품 및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박 동 수

I. 인성교육중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사항

- 범교과 학습주제인 ‘인성교육’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
- 교과 교육과정에 **가치덕목·인성역량**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 인성교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반영
-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교육을 통해 **바른인성**을 갖춘 창의 인재 양성을 지향하기에 동 활동에서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특색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각 영역별 활동취지를 살리면서 **인성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별 계획 수립
- 자율특색활동(창의주제활동)은 **학교급별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일정시간 인성교육 주제**를 선정하여 지도하는 것을 권장
-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성교육의 반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장

II. 인성중심 교육과정 편성

1. 학생·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천적” 교육과정 운영

가. 「학교 인성교육 목표 및 실천적 성취요소」로 인성교육 체계화

- ▣ 국가교육과정 및 인성교육진흥법(제2조)에 기초한 인성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학교교육과정에 적용

- “**인성교육 목표 및 실천적 성취요소**” 적용 매뉴얼 보급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한 확산
 - 학기말 학교교육과정 수립 시기에 **인성교육 관련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 실시**
- **교육청 교육과정운영지침**에 인성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 교육청은 인성교육중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및 컨설팅**
 - 학교는 자체적으로 인성교육 결과를 평가하고 차기 년도 계획수립에 반영

나. 인성중심 교수·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1) 학교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생의 학습 부담 완화

- **학교별 여건에 맞고 특색있는 인성교육중심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으로 학교의 부담 완화**
 -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과 간 융합수업, 교과 외 활동과 연계하여 인성교육 운영
- 학교교육과정 수립과 실행의 전 과정에서 “**교사 수업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완화
 -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학습량 부담완화(교과별 성취기준을 현재보다 20% 가까이 축소)**”가 학교 교실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사 주도**”로 학생의 학습량 적정화
- 보여주기식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계획→수업→평가가 일관성** 있는 “**실천적 학교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과정을 통한 인성교육의 모범 실천
 - 학교여건에 맞게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교육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교육과정은 반드시 실천**”하는 풍토 정착

2) 창의적 체험활동을 인성교육중심으로 “정상화”

- **인성을 주제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및 활동을 연계·통합**하여 실천적으로 인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별* 기존 학습자료 재구성, 프로그램 보완을 통해 학교단위의 특색 프로그램 정착
- * 자율특색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각 영역별 활동 정상화
-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습과 여유**”가 있는 인성교육을 위한 시간이라는 인식을 확산
- 창의적 체험활동이 자습시간, 교과 수업 등으로 대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학지도 및 지원
 - 학교별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 **봉사활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확대**

-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주제를 정하고 학생 스스로 적합한 봉사활동을 계획하도록 지도

- 학생의 흥미,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봉사활동프로그램 지속 개발·보급

○ **창의적 체험활동과 인성교육 실천주간 연계 운영**

- 인성교육 정책 방향과 지역별 인성교육 특화 사업을 반영한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 계획 안내

-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설정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블록단위로 운영 권장

※ (예시) 학기별로 4월 2~4주 중 1주간, 9월 2~4주 中 1주간 운영

3) **인성교육중심 교육과정 우수모델 확산**

○ 교육청 단위에서 인성교육 우수학교 선정을 확대하고 연수, 컨설팅, 장학자료 등으로 확산

○ 인성중심 학교교육과정 모델 및 사례 공유를 위해 인근 학교와 “**학교교육과정 네트워크**” 구축

- 정기적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운영 정보 공유

- 협력과 협업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업무 부담 완화

2. **인성교육중심 수업과 평가 정착**

가. **인성교육중심 수업과 평가개선으로 교실혁신**

▣ “인성교육중심 수업” 개념

수업에서 교사가 의도한 인성적 경험이 반영된 교수학습활동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성적 역량과 가치를 학습 하는 수업

1) **수업혁신**

○ **지식 전달식 수업에서 인성교육중심 수업으로 혁신**

- 각 교과 **의 특성과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추진하여 인성교육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도**

※ **현행 및 2015개정교육과정 틀 안에서 인성교육중심의 수업내용 및 방법 혁신으로 추진**

※ **교과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하고 교수·학습을 개선하여 학생의 학습 부담 감소**

- **협력학습·프로젝트학습토론학습 등 참여·활동중심 교수학습을 교실 현장에 정착**

- 교사 간 팀티칭 및 협동연구를 통해 학년 단위, 학과 단위에서 공동의 수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
-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 학생과 학생간의 대화·협력, 정서적·인간적 소통을 촉진하는 수업 진행
- “클릭수업, 방송관람 수업, 문제지 풀이 수업”을 지양하고,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긍정적 상호작용이 있는 수업으로 전환

2) 평가개선

- 인성요소를 반영한 평가 개선
- 학교수업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평가방식을 총괄평가에서 “과정중심평가”로 개선하여 서열과 경쟁이 아닌 학습과 성장을 돕도록 평가
 - * 수행평가, 프로젝트 평가, 자기성찰평가, 동료평가 확대
 - * 단편적 지필평가를 축소하고 과정평가 내용에 “정의적 영역” 확대
- 학교급별 “정의적 영역 평가” 관련 교원 연수 실시 확대
 - * 평가방법의 개선과 병행해서 “평가내용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평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시행
- 학교 인성교육 관련 사교육 억제 유도
- 학교공동체와 협의하여 “시험의 횟수” 및 “교과 관련 경연 대회” 축소
- 인성교육 관련 사교육 억제를 위해 “인성관련 교내외 경시대회 축소”

3) 수업지원 확대

- 교사연수 등 수업혁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확대
- 교과별 인성역량과 인성덕목을 반영해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의 현장 적용 및 확산
- 교육청 수업혁신 교원 연수 및 관리자 연수 확대

3. 「도덕과」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가. 도덕과 수업을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소양과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재구성

- 도덕과 내용 개선을 통해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 국어, 사회, 예체능 등 교과 간 융합, ‘사례·활동 중심의 인성교육’ 실현

나. 도덕과 교수·평가 개선 지원

- 도덕과 교과교육에 인성교육의 핵심가치·역량을 구체화하고, 인성교육 요소 관련 평가 매뉴얼 제작·보급(교육부, '18)
- 학부모 또는 지역인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인성교육 수업의 장 마련

4. 누리과정을 통한 유치원 인성교육 내실화

가. 누리과정 전반에 기본생활습관과 더불어 사는 역량 강조

-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 자율성 함양, 사람과 자연 존중 및 우리 문화 이해 포함
- 다원화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으로 인터넷·미디어 중독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 반영

나. 자유선택활동 강화 및 바깥놀이 시간 확보

-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기를 수 있고 또래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자유선택활동 1시간 이상 배정
- 유아가 심신의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발산하도록 매일 규칙적으로 대근육 활동을 포함하여 1일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 시간 확보

5. 체육·예술 등 교육정책의 인성친화성 제고

가. 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인성함양

■ 체육활동을 통하여 체력향상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성을 갖추어,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 함양

-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육교육 내실화
 - (중) 학교스포츠클럽 및 자유학기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수업 자료집 개발·보급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고) '14년도 입학생부터 체육교과는 10단위 이상 이수, 매학기 편성 (특성화고는 '18년도 입학생부터 8단위 이상 이수)
- 스포츠활동 활성화를 통한 1학생 1스포츠 문화 조성
 - 모든 학생들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별 최소 3종목 이상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 인성교육 실천 우수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하여 건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모델 확산
 - 학생자치회가 주도하여 기획·운영하며 전교생이 참여하는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운영
 - 인근 학교 학생들과 스포츠를 통하여 상호 교류와 존중을 배우며 함께 하는 지역별 상시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지원**
 - 교육(지원)청, 지자체, 유관기관, 지역대학, 체육단체, 학교가 참여하는 체육 교육협의체를 확대 구축하여 학생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 연계 체육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나. 예술교육을 통한 조화로운 감성 및 정서 함양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 일반교과와 다양한 예술분야의 융합수업 콘텐츠 자료 개발·보급, 예술교육 거점학교 운영 등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 예술강사지원사업(문체부 협업)을 통한 예술전문가 협력 수업 지원
-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 체험 기회 확대**
 - 학생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예술교육사업을 통한 학생들의 예술 체험 기회가 인성함양에 기여하도록 지원 확대
 - 1학교 1예술동아리 이상, 1학생 1기 키우기 활동 등 전개
 - ※ 학생들이 희망하는 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뿐만 아니라 인성·적성 개발, 사회성 함양 도모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악기교육 등 학교예술교육 지원 강화
-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 다양한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6. 인문소양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

- **인문소양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인문소양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인문 학생동아리 지원을 통한 또래문화 개선과 인문소양 함양
- **체험과 소통의 인문학 콘서트 개최**
 - 지역의 특색과 문화를 반영한 인문학 콘서트 특화 운영 및 인문학 가치 공유
- **읽고 · 생각하고 · 만드는 독서 활동 전개를 통한 삶으로 이어지는 독서교육**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 수업 중 ‘1학기 1권 독서’ 활동 등과 연계한 읽고, 생각하고, 만드는 독서 운동 전개

Ⅲ. 인성중심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제언

학생의 성품 및 인성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에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 중심 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교육 정상화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인성교육은 단위학교별로 특성화된 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관련 사업의 지원에 대해 전반적 검토와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성교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문화(풍토)를 조성해 가야 한다.

넷째,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단위 학교 차원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이 내실 있게 지원되어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2016년 1월까지 공청회를 거쳐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며, 각급학교는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원의 인성역량 함양을 위해 연간 4시간 이상의 인성교육 연수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론4)

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확산

前 충남일보 편집국장
이 명 우

1. 들어가는 말

뉴스에서 가끔 평생을 폐품을 팔아 모아온 돈을 기부하는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들의 가슴 훈훈해지는 소식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치밀한 계획 아래 살인을 저지른 뒤 시체를 은폐하기 위해 차마 못할 짓을 저지르는 흉악범들의 소식 역시 접하게 된다.

사람의 인성이 어떠하다는 것은 그 마음의 바탕이 어떠하며, 사람된 모습이 어떠하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성의 개념이 ‘마음’과 ‘사람됨’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사전에서 ‘사람’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포유류의 일종으로, 직립보행을 하며 사회를 이루고 고도로 발달된 두뇌를 소유하고 있어 언어와 도구를 쓰는 것이 그 어떤 종보다 자유로운 생물 중’으로 명명하고 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이미 사람이다.

사람 된 모습은 사람다운 사람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다운 모습은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이 통합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다운 모습은 또한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치의 추구하고 실현은 사람으로부터만 찾아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사람다운 모습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에게서, 사회적 차원에서는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성을 구성하는 ‘마음’과 ‘사람됨’은 서로 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통합된 마음은 사람됨의 바탕이 되고, 사람됨은 통합된 마음이 가치의 실현을 통해 드러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통합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는 사람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마음은 知(智), 情, 意의 세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知)는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리고 의(意)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결심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렇게 볼 때 마음이란 知(智), 情, 意의 근원으로 정신 작용의 총체이다. 마음은 시비·선악을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知(智), 情, 意가 조화롭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는 자아실현 및 도덕적 삶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 된 모습은 이처럼, 자아를 실현하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즉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통합된 마음과 사람됨의 관계는, 보는 측면을 달리할 뿐 인성의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현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통합된 마음은 사람 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됨은 통합된 마음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 7월 발효되어 본격적인 실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요체 역시 ‘사람됨’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에 하는 문제라고 본다.

인간이라는 하나의 객체가 사회와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됨’ 혹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2.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진흥법의 의미

인성교육진흥법은 청소년의 폭력이나 자살 등 각종 반사회적 문제가 급증하면서 그 필요성이 부각됐다.

인성교육진흥법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협력체제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자칫 준법에 민감한 학생과 교사에게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작동할 경우 사문화된 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오히려 공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본래의 인성교육 자체마저도 소홀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이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기성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배우면서 실천하는 자율적 시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게 주는 과제가 큼을 유념해야 한다.

3. 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인간의 삶은 모든 인간 개개인의 ‘인간됨’을 그 근본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요구되는 고유한 성질과 품성이 있으며,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비형식 교육과 더불어 학교와 같은 형식적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교육은 인간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성질과 품성을 도야함을 그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보화, 국제화, 다원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 사회는 정보통신기술과 과학의 발달을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다. 지식과 정보는 넘쳐나며, 전 세계는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단일 생활권 속에서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의 시대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세계는 황폐해지고 나아가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도 있다.

현대 사회는 각종 풍요와 편리함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많은 사회적 병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물질만능주의와 편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들의 팽배, 생명경시 풍조의 만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통적 가치관이 변질되고 도덕성이 상실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등의 인간성의 몰락으로 인한 정신세계의 빈곤이 초래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높은 학력을 자랑하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규범과 도덕성은 점점 더 무시되어가는 가운데 오로지 삶의 기능적 측면이 중시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더욱 강박해져가는, 일명 인성과 도덕성의 상실이라는 ‘역설적 시대’(paradoxical period)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사회적 규범과 규칙의 준수 등과 같은 인성적, 도덕적 내용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오로지 남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의 승리만이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종 비도덕적·비윤리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던져주기도 한다.

가출과 범죄, 자살 등의 비행과 탈선이 10대 청소년들에게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연령적으로도 점차 하향화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인간다움, 인격적 정체성 등과 같은 가치들은 크게 축소되거나 상실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인성교육의 역할을 담당하여 오던 가정은 핵가족화와 자녀수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기본생활습관지도와 바람직한 성격 및 가치관 형성 등에 있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학교 혹은 사회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불안과 도덕적 위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성 및 도덕성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절실해져 감에 따라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은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인성(人性)이란 개념은 인간의 성격이나 개성(personality), 인격(character), 혹은 기질(temperament) 등으로 표현되어지나, 이 가운데 어느 특정한 요소만을 가리키기보다는 이들을 망라하는 종합적, 포괄적인 의미로서 개인의 특징적인 사고나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 및 생리적 체제로서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역동적 구조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을 교육한다는 것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인간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며,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관에서 인간의 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 의미가 규정되어 왔다.

이는 공자가 논어의 전편을 통해 일관되게 주창하여 온 도(道), 덕(德), 인(仁)의 가르침과 상통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올바른 삶과 행실, 남에 대한 도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다.

한편, 서양에서 인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심리학과 윤리학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인성과 관련하여 성격(personality)이라는 용어를, 그리고 윤리학자들은 인격(character)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여 왔다.

특히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건전한 성격을 다루는 성장심리학을 중심으로 인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윤리학에서 인성은 한 개인에 있어서 실천적인 선택과 행동에 관련된 도덕적 특성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에 따라 Adler는 인성을 ‘인간의 사회적 자극치’로 파악하였고, Sullivan은 ‘인간생활을 특징짓는 재현적, 인간상호적 장면의 지속적인 유형’으로 보았다.

윤리학자들에게 있어서 인성교육은 대체로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을 의미한다. 인격교육을 주장하는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도덕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격을 “도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ability)과 성향(inclin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특징들의 집합”(Berkowitz)으로 정의내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성의 의미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다. 인성에 대한 동·서양의 다양한 관점의 차이를 망라하여 이해하여 볼 때, 그것을 인간본성으로 보든, 인간다운 품성이나 인격으로 보든, 혹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보든지 간에 인성의 의미에는 우리 인간이 지향하고 성취해야 하는 인간다운 면모, 성질, 자질, 품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물론 인성의 그 인간다운 특성과 성품이 인간 내부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가 아니면 외부에서 형성되는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더라도 인성에는 인간다움에 대한 가치판단이 내재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이란 결국,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 다시 말해 “학생들로 하여금 만족스러우며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 가치를 획득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자질을 전면적으로 육성하려는 교육, 즉 실용적인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통한 입신출세나 혹은 극단적인 애국심 등을 강조하는 현대 학교교육의 왜곡된 경향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전인교육과 동의어로도 사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물질보다는 인간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는 이타적 정신과 기본생활습관을 정착시키고, 민주시민의식 및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 그리고 가정이 협력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전 교과는 물론 특별활동과 생활지도 속에서 대화와 토론, 상담, 사회봉사 등의 실천적인 활동을 통한 민주시민윤리를 내면화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활성화하여 극기, 협동심,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역점을 두는 실천학습을 제공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은 교육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다. 고대로부터 세계를 통틀어 교육은 한편으로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이해를 겸비한 지혜로운 사람과,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을 갖춘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두어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 존중과 법의 준수, 대중적 생활에의 자발적 참여, 복지에 대한 관심 등의 민주적 가치에 기반을 둔 특별한 인성교육을 요구하여 왔다.

인성교육은 한 사회에서 소중하게 여겨져 온 전통적인 가치와 민주적인 가치들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수해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것은 인성교육이 교육적으로 전수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훌륭한 인격적 특성이나 덕과 같은 도덕성의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에서도 알 수가 있다.

삶 그 자체가 수양과 공부의 과정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학교와 인성교육의 관계를 논하는 일보다는 삶과 인성교육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과 실체에 제대로 접근하는 일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하는 국어 교육은 한 인간의 언어적 성장에서 극히 미미한 역할만 한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인간의 언어능력은 대부분 삶 속에서 획득되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의 경우에도 동일한 접근 논리가 성립한다. 학교에서 하는 인성교육은 한 인간의 인격성장 과정에서 극히 미미한 정도만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됨과 사람다움 등은 대부분 삶 속에서 획득되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한 인간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과 사회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 하겠다. 특히 가정환경은 한 인간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정의 배경과 부모의 생활방식이 자녀에게 전이되고 학습되어 습관으로 정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 속, 즉 가정과 사회에서의 인성함양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늘날 핵가족화 된 가정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현저하게 퇴락되고 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모든 일에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릇된 사회통념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지만, 오늘날의 부모들은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정교육을 소홀히 하여 이기적인 인간, 무례한 인간이 양산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속에 이루어진 물질적 풍요와 번영 뒤에 드리운 그림자로 인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서의 따뜻한 가슴을 지닌 인간미 넘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은 날로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성교육진흥법이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강화 방안

가정은 첫 인성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다.

과거 대가족중심의 사회에서 가정내 인성교육은 전체 인성을 완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핵가족으로 가족형태가 변모하며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사라져 가고 있다. 웃 어른으로부터 본보기가 되었던 인성은 현대의 삶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그러나 역시 가정은 사회로 나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교육의 장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가족간의 대화를 통한 인성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하루 중 가족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불과 5분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가족간 대화가 단절된 생활속에서 인성의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란 난망이다.

우선 가정에서는 소통하기 위한 발판으로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어야 한다.

식사중에는 TV 시청을 줄이고 하루 일과나 가정의 공통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족구성원으로 함께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가정에서만이라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비방하는 댓글보다 공감하기를 배우게 하고 경청하기와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할 수 있는 언어적 기술을 습득케 하는 습관을 길러 실생활에 접목해야 한다.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삶의 가치를 안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가정생활을 통해 자존감도 높아지고 정서가 안정되어야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불신과 갈등의 충동을 줄여 나갈 것이다.

특히 부모간의 대화에서 서로에게 배려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생활중에서 본인이 아닌 남을 위한 배려를 습득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강화 방안

인성교육에서 지역사회가 갖는 역할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교육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가정이나 학교에서 습득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안한다면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역시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지역사회는 이들이 공동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함으로서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같은 지역민이라는 공동체의식을 일깨우고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협동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는 가정이나 학교에서와는 별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와 기업 등이 각자의 역할과 과제를 분담해야 한다.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성교육을 위한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공공단체나 기업에서도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봉사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실천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4. 결 어

일반적으로 인성의 함양은 학교와 같은 형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과 같은 비형식적인 삶의 공간들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열 살 전에 사람됨을 가르쳐라’에서 저자 문용린 교수는 부모들이 자식의 인품을 열 살 전에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은 부모로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교육, 즉 인성교육에 대해 성실하게 서술하고 있다. 어려서의 예의와 신뢰, 역지사지를 아는 사고능력과 판단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아동을 도와준다면, 그것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리더형 인간의 기본바탕이 된다는 작가의 주장은 여러 면에서 시사점을 던져준다.

문 교수의 지적처럼 사람의 인성은 완성되어서 태어나는게 아니고 미완의 상태에서 점차 골격을 갖추며 완성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미완의 인성이 완성체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릴 적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그리고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이 각각의 역할과 연계성을 발휘하며 인성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때 교육의 효과는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며 배가 될 것이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떤 방법으로 이 같은 효과를 창출해 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최상의 효과를 모색해 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대부분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방법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법은 그동안 지역사회나 가정에서 특히 학교현장에서의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가일층 배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오늘의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한 상당부분의 인성교육을 학교현장에서 모두 담당할 수는 없다.

가정과 지역사회도 인성교육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

MEMO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practic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MEMO

[illegible]

MEMO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practic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MEMO

[illegible]